지역 소식통

부안군, 일반숙박업 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활성화 기대

부안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축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군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위축된 숙박업 유치를 위해 '부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25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공포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관내에 숙박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신축일로부터 3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숙박업의 경우 일반 건축물에 비해 건물 시가표준액이 가중돼 납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광숙박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있으나 일반숙박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숙박업까지 포함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11월까지 축산업 정기 안전 · 위생 점검

정읍시가 축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19개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 법규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농가는 축산물 사육 기준을 비롯한 각종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확인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의 구비 여부 △등록된 사육시설에서의 실제 가축 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절차 준수 여부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운영 현황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

제22회 고창 청보리밭축제, 19일 개막

고창청보리밭축제장은 지금 청보리가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를 녹이고 초록빛 얼굴을 내밀고 있다. 30만평의 광활한 대지에 초록빛으로 물들인 청보리가 관광객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19일부터 5월11일까지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주제로 고창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열린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전국 최초 '보리'를 주제로 한 경관농업 대표 축제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드넓은 청보리밭을 무대로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한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영화·드라마 속 장면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먹거리 안전도 빼놓을 수 없다. 군은 축제장 내 음식점 위생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바가지 요금없는 축제 운영을 위해 종합상황실 내 신고센터, 식사류 및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로, 볼거리와 먹거리 등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줄 것"이라며 "축제장은 물론 다수가 모여드는 장소도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군민과 관광객이 맘껏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금선 감자 첫 출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서 농진청과 공동 출하 행사 개최

부안군은 지역 농특산물인 감자 '금선' 품종의 첫 출하를 기념해 지난 1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농촌진흥청 및 전북농업기술원과 공동 출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와 농촌진흥청이 협력해 추진한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부안지역에서 재배된 금선 감자의 우수성을 전국 유통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선 감자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으로 기존 품종 대비 수량성이 높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외관이 깔끔하고 식감이 뛰어나 우체국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자 시식 행사와 품종 설명, 유통 관계자 간담회 등이 진행됐으며 금선 감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도매상인들의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진흥청과 긴밀히 협력해 고품질 감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헌신에 보답합니다"… 정읍시, 국가유공자 주택 수선 지원

최종 25가구 선정 내부 수선

정읍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 여건에 놓인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한 정읍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08명의 접수를 받았다. 이후 연령과 유공자와의 관계, 가구 유형,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5가구를 선정했다. 올해는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400만원 이내에서 도배, 장판, 씽크대, 창호 교체 등 주택 내부의 수선을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읍시 담당자와 정읍시주거복지센터 직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각 가구의 실제 거주환경과 요청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뒤, 맞춤형 수리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모든 수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산불 피해 가구 주거환경 복구 지원

정읍시가 소성면 금동마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도배와 장판 무상 시공을 지원하며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일 정읍시가 정읍시자활기업협의회, 정읍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산불로 인해 주택 일부가 불에 타 그을음 피해를 입은 금동마을 4가구에 도배와 장판을 무상으로 제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도배·장판 공사의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이번에는 정읍시자활기업협의회 장우현 대표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가 전문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지역 내에서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우현 대표는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무상 시공을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소성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실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11일부터 14일까지 위원회별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정읍시립요양병원,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등 9개소를 방문했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는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국립숲체원 진입로 개설공사부지, 장금이파크 등 8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 운영에 대하여는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대대적인 시민홍보,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조하였고, 김명관고택에 대하여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속 가능한 비숙박형 체험프로그램 등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월영습지와 아양산 등을 연계한 산림 훼손 없는 휴식 공간 조성을 주문하였고, 구절초지방정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누구나 제약 없이 찾는 지방정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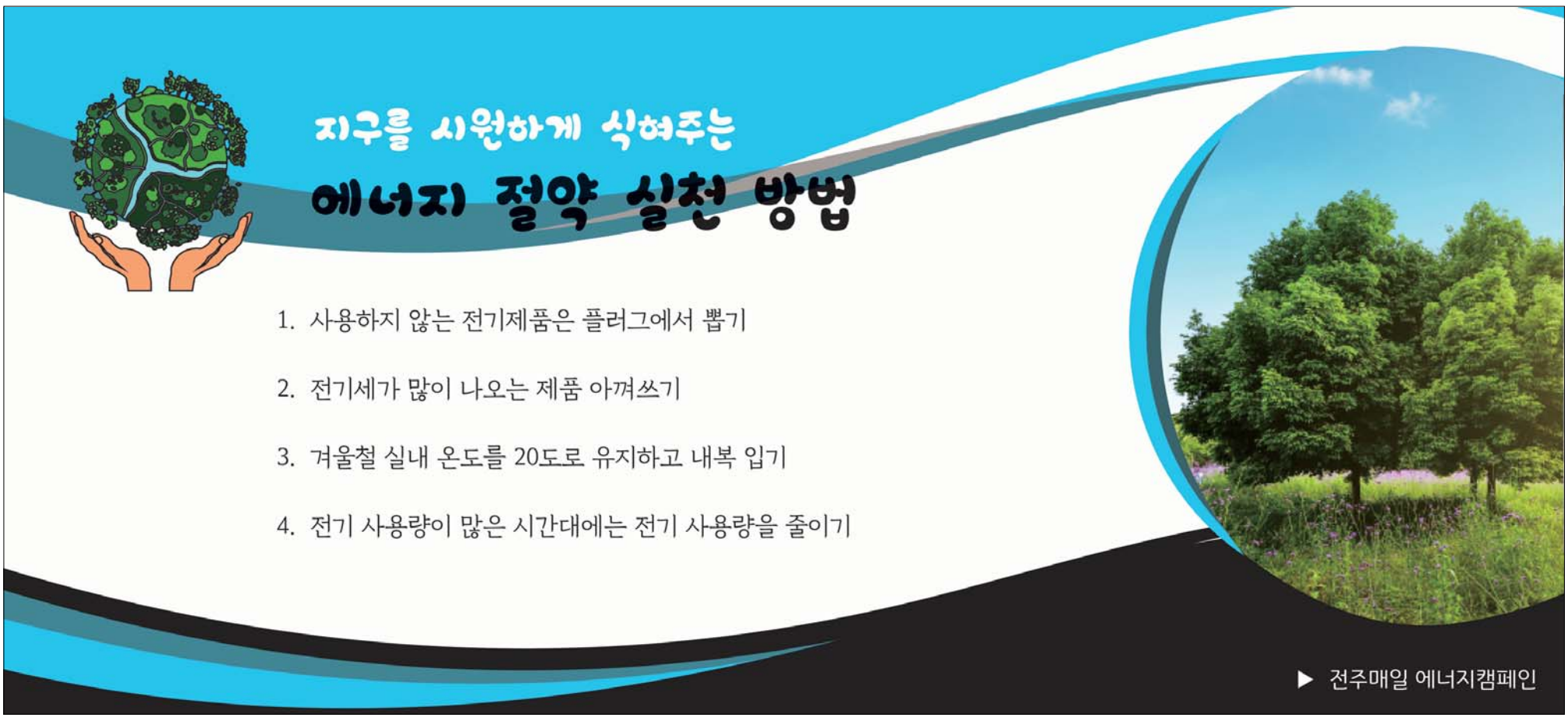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 본격 운영

고창군이 고창갯벌의 보전가치 확산을 위한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는 유아와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국내의 대표 유산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고창갯벌 아기 새 교실(유아 생태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고창갯벌 어린이 레인져스 교실(청소년 갯벌유산 지킴이 양성) △고창갯벌 키퍼스 교실(고창갯벌 보전 관리 인식증진 교양강좌) △고창갯벌 시니어 교실 △고창갯벌 바다쓰레기 줍기 대회 등이 운영된다.

오는 4월18일까지 '고창갯벌 어린이 레인져스' 모집을 시작으로 유산학교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참가 아동이 고창갯벌의 생물자원과 생태환경을 관찰, 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생태교육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총 4회차로 운영되며, 생태 모니터링, 플로깅, 보호종 관찰, 서천갯벌 견학, 수료식 등의 일정이 포함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동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고창갯벌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